

출판계 움직임

장 판매도 할 예정이다.

독서감상문 입상자 발표

출협은 이상희군(동래국교 6)의 「언젠가 반드시 평화가 찾아온다!」(국민학교부 최우수작)를 비롯한 제25회 독후감상문 수상자를 발표했다.

지난 5월1일부터 9월5일까지 접수된 독후감상문은 총 7만8천792점. 국민학교부 3만3천840점, 중학교부 2만4천693점, 고등학교부 300점, 대학·일반부 300점 등 전국 354개교에서 단체응모를 해왔다. 이들 응모작에 대한 심사는 예심과 본심 두차례에 걸쳐 실시되었는데 본심은 송정숙(서울신문 논설위원), 유종호(이대교수·문학평론가), 조대현(아동문학가), 김진홍(출협사무이사·전예원대표)씨가 맡았다.

우수 독후감상문에 대해서는 국민학교부, 중학교부, 고등학교부, 대학·일반부 각 부문별로 각각 최우수작·우수작·가작을 뽑아 상장과 부상을 수여한다. 이외에 초·중·고교 3개부문 최우수상 수상자 및 최다 수상자를 낸 독서지도교사에게 지도교사상이, 예선통과작을 가장 많이낸 학교에 특별상이 수여된다. 시상식은 오는 10월12일(월) 출협강당에서 열린다. 수상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괄호 안은 상장 및 부상)

●국민학교부

▲최우수작 : 「사막의 우정」을 읽고-이상희·동래국 6(문교부장관상·9만원상당의 책) ▲우수작 : 「벌거벗은 임금님」을 읽고-전은진·온양온천국 2/「미운오리새끼」를 읽고-장수경·유석국 2/「곤충기」를 읽고-강혜영·임실오수국 4/「북한어린이의 생활」을 읽고-안계현·당진합덕국 1(이상 출협회장상·5만원상당의 책) ▲가작 : 류민정 외 24명(출협회장상·7천원상당의 책)

●중학교부

▲최우수작 : 「끝없는 우주」를 읽고-최아란·사천여중 1(문교부장관상·10만원상당의 책) ▲우수작 : 「사람에게는 땅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읽고-전수만·삼호중 1/「꽃들에게 희망을」을 읽고-서지영·목포제일중/「노인과 바다」를 읽고-최선영·사천여중 2(이상 출협회장상·6만원상당의 책) ▲가작 : 류지안 외 19명(출협회장상·8천원상당의 책)

●고등학교부

▲최우수작 : 「끝없는 이야기」를 읽고-신혜선·숙명여고 2(문교부장관상·12만원상당의 책) ▲우수작 : 「그 바다 끓여 넘치며」를 읽고-이금순·한일여고 2/「난장이가 쓰아올린 작은 공」을 읽고-이상희·숙명여고 2/「25시」를 읽고-이정용·예산여고 2(이상 출협회장상·7만원상당의 책) ▲가작 : 이선화 외 15명(출협회장상·9천원상당의 책)

●대학·일반부

▲최우수작 : 「서머힐」을 읽고-차진옥(문공부장관상·20만원상당의 책) ▲우수작 : 「사람의 아들」을 읽고-김형태/「어린이는 어른의 아버지」를 읽고-김명희(이상 출협회장상·10만원상당의 책) ▲가작 : 정창순 외 9명(출협회장상·1만원상당의 책)

●특별상

대구성화여자중학교, 해화여자고등학교(출협회장상·도서 500권)

한국대표단 西獨 항발

오는 10월7일~12일 서독에서 열리는 제39회 프랑크푸르트 국제도서전시회에 참가할 한국대표단이 9월30일 출국했다. 대표단은李斗暎출협 사무국장을 비롯, 7개 출판사 대표로 구성됐다.

세계의 책잔치로 유명한 이번 프랑크푸르트 도서전시회에는 80여개국에서 7천여 출판사가 참여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576종 586권(영문판 183종 188권 포함)이 출품된다. 대표단은 전시기간 중 개최되는 국제출판협회 회의 및 각종 출판관련 국제회의·세미나에도 참석, 국제저작권 동향, 세계 출판계 흐름, 서점문제 등을 살핀 후 15일경 귀국한다.

대표단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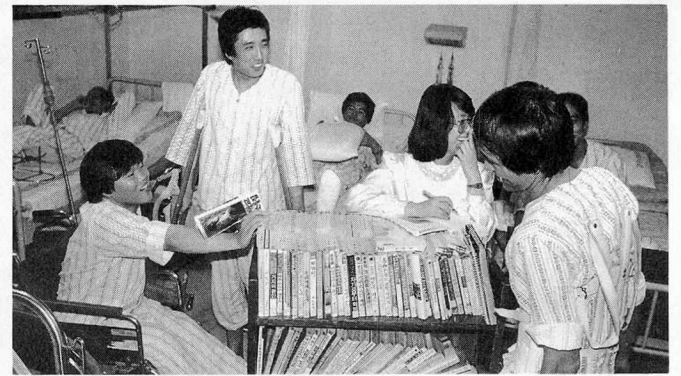
스이두영(출협 사무국장) △황성옥(월간사진 대표) △김봉모(대학당 대표) △최선호(청한문화사 대표) △장석주(청하 대표) △김중수(한울 대표) △강학중(대교문화상무) △김진락(웅진출판 편집부)

이외에 예경산업사, 안그라픽스, 금성출판사, 서울국제출판사 대표도 개별적으로 이번 프랑크푸르트 전시회에 참가할 예정이다.

출협, 업무自動化 추진

출협 사무국은 업무처리의 단순화·신속화를 위해 납본업무 및 일반사무의 전산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사무국은 업무전산화 장기계획을 수립, 이미 월여전에 컴



병원을 찾아 독서운동을 벌이는 등불회 회원들.

모범장서가에 崔喜雄교사

독서주간(10월24일~30일)을 맞아 대한출판문화협회는 모범장서가를 비롯한 4대 독서상 수상자를 선정 발표했다.

87년도 '모범장서가'에는 강원도 원주 육민관고등학교 교사 崔喜雄씨(41)가 선정되었으며, 병원환자를 중심으로 독서운동을 펼쳐온 등불회(회장 李美羅)가 모범독서운동단체로, 경남 고성외 정동새마을문고(회장 鄭聖皓)·부산의 초읍동새마을문고(회장 南德夫)가 우수새마을문고로 각각 선정되었다.

출협은 오는 10월12일(월) 출협강당에서 시상식을 갖고 이들에게 상장 및 부상을 수여한다.

수상자의 공로는 다음과 같다.

●모범장서가 최희웅씨

수학교사인 최희웅씨는 고교시절 1900년대 초기에 발간된 수학교과서를 발견한 이후 도서수집에 남다른 관심을 두어 현재 장서가 3264권에 이른다. 대학시절 전공인 수학과 관련된 교과서류를 주로 수집해 오다가 차츰 다른 분야의 서적도 수집하기 시작했다. 그의 장서 중에는 근·현대 수학교과서 100권을 비롯한 교과서 500권, 1890년대 신체시부터 현대시까지를 망라한 시집 1000여권, 문학도서 1500권, 고서 200권(회귀도서 40여권 포함) 등이 있다.

●모범독서운동단체 등불회

퓨터를 도입한 바 있는데, 우선 1단계로 납본 및 통계업무를 전산 처리하고 2단계로는 경리·회비수납·공문서 처리·회관 관리 등 일반사무까지도 전산화할 계획이다.

世光, 잡지 「대중음악」 창간

음악도서를 전문으로 출판하는 世光음악출판사(대표 朴信俊)가 격월간 잡지 「대중가요」를 7·8월호로 창간했다.

「우리 가요를 보급하고 유익한 가요계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음악인

협회장 이따라씨 등 5명이 83년 '항상 등불처럼 온유한 빛으로 정신적 지주가 되자'는 뜻에서 등불회를 발족시키고 병원장기환자를 중심으로 독서운동을 펴기 시작했다. 등불회는 현재 소설·수필·시집 등 문학서를 중심으로 약 4천권의 장서를 갖추고, 고려병원 세브란스병원 강남성심병원 환자들에게 1주 3회(월·수·금) 도서를 빌려주고 있다. 회원은 40여명, 주로 사회복지전공 학생들과 직장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수새마을문고

(정동새마을 문고)

경남 고성의 정동마을 젊은이들이 73년 마을문고를 정비하기 시작한 이래 도서수집에 힘을 쏟아 현재 4320권의 도서를 갖추고 있다. 이 새마을문고는 월 2천여명이 이용하는 등 왕성한 활동을 벌이고 있는데, 86년 고성군 문고센터로 지정되기도 했다.

(초읍동새마을문고)

시립도서관에 밀려 유명무실하던 것을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통해 활성화시켰다. 86년부터 초읍동, 연지동에 사는 가정주부와 학생을 대상으로 6개월 과정의 한문무료강습을 실시하여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천자문·소학·명심보감을 배우는 한문무료강습은 이미 145명의 수료자를 배출했고 현재 90명이 수강 중이다.

10월 11일 '책의 날' 선포

출협은 오는 10월11일을 '책의 날'로 선포하고 기념식(12일 오전 10시반 출협 강당)과 함께 기념강연, 기념조각 제막식 등 행사를 갖는다. (관련기사 17면)

'출판문화 1300년' 열어

출협은 '책의 날' 제정에 즈음하여 우리나라 인쇄 및 출판문화의 발자취를 더듬는 '출판문화 1300년'을 개최한다.

오는 10월24일~11월2일까지 10일간 교보문고 지하 전시장에서 열릴 이 특별기획전에는 팔만대장경 경판 및 탁본(다라니경 복제물)에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인쇄기술면에서 전기를 이룬 책과 시대별 특징을 드러내는 책 300여종이 전시된다.

전시자료의 선정 및 수집은 林仁圭 출협회장을 비롯, 李謙魯·安春根·呂丞九·尹炯斗씨 등이 맡았다.

'87 新刊圖書展도

한편 '1300년전'과 병행하여 '87 신간도서전도 같은 장소에서 열린다.

이 신간도서전에는 86년 9월1일~87년 9월30일 사이에 발행된 출협 회원사의 초판도서 중 각 분야의 우수도서 5천여종이 전시되는데, 현

과 팬들의 가요를 이룰 것'이라는 취지로 창간된 이 잡지는 창간호에서, 「부산 가요계를 찾아서」 「김민기 어디서 무엇을」 「헤비메틀그룹 시나위」 「87상반기 가요계 기상대」 「시리즈로 엮은 한국포크송史」 등을 다루고 있다. 이 외에 최신 가요 및 팝송, 조용필 9집 앨범, 히트곡 베스트 15, 여름노래모음 등 75곡의 악보를 수록했다. (A5신/176면/1500원)